

여야, 국회 정상화로 비쟁점 민생법안 91건 의결

모든 어린이집 평가의무화... 방식은 인증 → 등급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 유통 활성화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열고 그간 미뤄졌던 각종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0건과 의회지도자 홍진 선생 흉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고용세습 국경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함에 따라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것들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비쟁점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

급으로 변경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해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자에게 무조건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던 현행법을 완화하는 것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인건이 상정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

을 허용했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 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과 관련된 장비발매소와 장비매장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고혈압약 위해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추진 건도 국회에서 큰 이견없이 의결됐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며칠간 휴회를 한 후 2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

전통예술 서예 진흥 법적 근거 조성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서예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침내 서예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예 진흥법이 마련됐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예술인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성됐다.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 이 전무하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독립적으로 서예 진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은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이다"면서, "이번에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서예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각종 활동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젊은이들과 전업주부들에 건강검진 혜택

김광수 의원 발의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0대 청년의 경우 미취업자들이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18일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김 의원은 '김광수법(法)'으로 불리는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 대표 발의와 동시에 본회의 5분 발언,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이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선 '청년건강 지킴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



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이에 지난 2016년 8월 본 의원은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하였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25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회의, 한국화보가 주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 시상하는 행사다. 송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를 비롯해 새만금 실행 조속추진 촉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전북과 베트남간 농·수산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 등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